# 위기의 힐러리 "묘수가 필요해"

## 미 대선 여론조사 트럼프에 밀려

## 민주당 무능과 후보 자질 때문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 자칫 패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가 공표되면서 민주당 측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자연 대선후보로서 클린턴 후보의 자질론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사설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클린턴의 부진을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의 막판 버티기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데 대해 정국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클린턴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샌더스가 아니라 지난 8년간에 걸친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클린턴 자신의 후보로서 자질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과 달리 그들이 당초 희망하던 대선 후보를 갖게 됐으나 기층 당원들의 상당수가 클린턴을 지지해온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이것이 샌더스의 예선전 완주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 8년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고, 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고, 또 흑백간 인종 긴장도 악화하는 등 나아진 게 없으나 클린턴은 이 같은 민주당 정책의 현상유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샌더스 지지층의 핵심은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실패를 겨냥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 개인적으로도, 그들 부부는 정치를 이용해 미국 내 0.1% 부유층에 올라섰으며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자선재단에 대한 외국인 사업가들의 기부에서도 나타나듯 정치적 이익상충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드만삭스 연설에서 나타나듯 클린턴 후보는 이른바 최상위 부유층과 월스트리트를 대변해왔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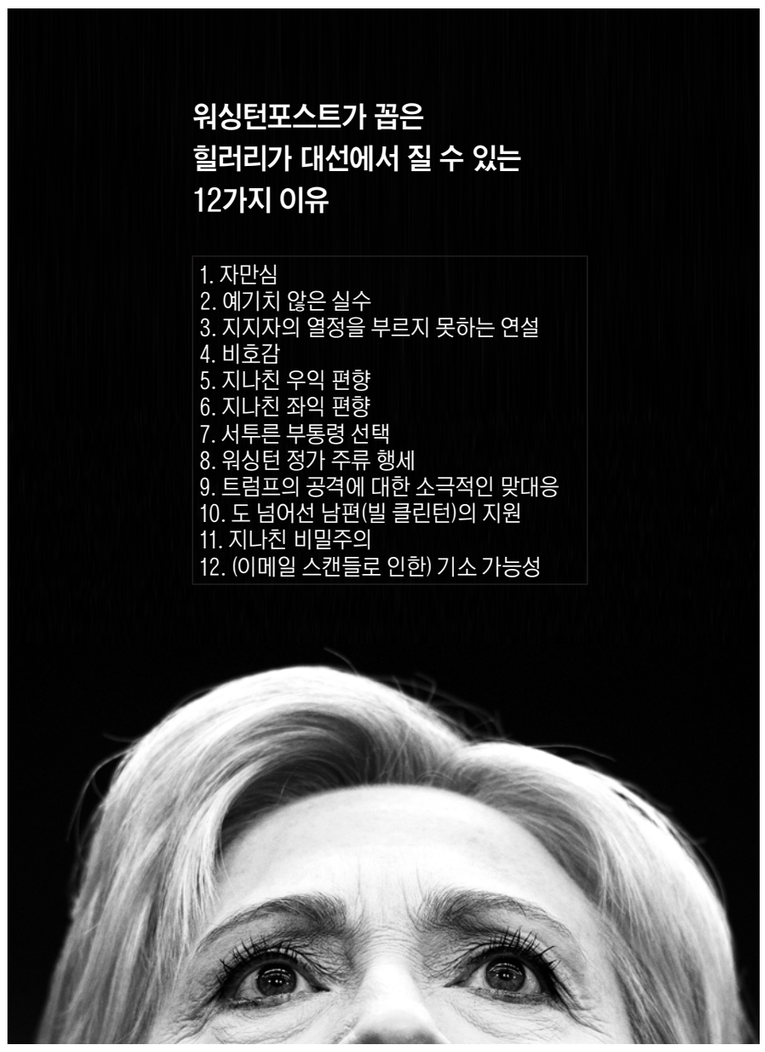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에 비해 오히려 49%-37%로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인용했다.

이 밖에 샌더스 지지자들이 오히려 11월 대선에서 클린턴보다 샌더스가 트럼프에 대해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원들은 당초 이번은 클린턴의 차례라고 믿어왔으나 본선이 다가오면서 과연 자신들이 후보를 제대로 뽑았는지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클린턴이 트럼프에 패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클린턴과 네이더의 유령'이라는 칼럼에서 클린턴에 대한 샌더스의 반감과 이에 따른 행보가 심상치 않다면서 네이더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샌더스가 결국 제3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럴 경우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앨 고어의 발목을 잡았던 랠프 네이더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中 리커창 "경기부양 위해 규제 풀기 온 힘"

## 외국기업, 내국인 대우 검토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전날 언론에 공개된 국무원 화상회의 담화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경기하강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증가율과 외국자본의 사용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외부수요의 약화와 투자환경 변화, 중국의 내부 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면서 외국자본의 제조기업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배치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외국 기업들의 중국탈출을

리커창 총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부연안에서 중부와 서부,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야한다면서 노동집약적 제조기업들이 중국이 직면한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승인과 절차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이 외국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부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기, 이동전화, 교통 운수, 석유·가스, 의료와 교육 부문 등에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비합리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제거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중앙정부 권한을 하부단위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 국방부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 사망"

무장단체 탈레반의 최고지도자인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가 미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한 가운데 탈레반 측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탈레반 측은 22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소식통으로부터 사망 사실이 보도되자 "만수르와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격을 우려해 전화기 전원을 꺼 놓은 적도 있다"며 사망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밤 복수의 탈레반 고위 관계자들은 "만수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용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또 그룹 지도자들이 만수르 후계자를 지명하기 위해 파키스탄 휴양도시인 퀘타에 모일 것이라고 AFP 통신에 밝혔다.

앞서 만수르가 탑승한 차량이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서 무인기 공습을 받아 만수르와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AP 통신 등이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만수르

아프간 정부는 만수르의 사망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관리인 압둘라 압둘라는 "만수르가 더는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15년째 내전 중인 무장단체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만수르는 지난해 7월 말 전임 최고지도자인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의 사망 사실이 공개된 직후 새 최고지도자에 선출됐다. 만수르는 그간 아프간 정부와 평화 협상에 반대해 미 국방부는 그를 '평화 협상의 결림돌'로 지목해왔다.

만수르는 지난해 내분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아프간 정부가 주장했으나, 탈레반은 만수르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사망설이 나돌기도 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32 조조대군 돌파한 조운

조운(趙雲, ?~229)의 자는 자룡이고 상산군 진정현 출신이다. 유비를 보좌해 촉나라 건국에 기여한 명장이다.

그는 원래 공손찬의 부하였는데 원소에게 패망한 후 유비에게 귀순했다. 조조가 형주를 정복하고 강남으로 패주한 유비를 추격하자 유비의 처 감부인과 아들 유선을 보호해 난을 모면하게 했다. 유비가 익주의 유장을 공격하자 제갈량의 명에 따라 양자강을 거슬러 서쪽 군현을 평정했다. 이 공으로 익군장군에 봉해졌다. 227년 한중에서 위나라 조진의 대군과 맞서 싸웠다. 229년 북벌을 완수하지 못한 채 죽어 순평후로 추증되었다. 관우 장비 등과 같이 오호장군으로 불리었다.

그의 용맹이 후세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각인된 것은 당양의 장판에서 조조의 대군을 돌파해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살린 장면일 것이다. 진수의 삼국지 조운전에는 유선을 품고 조조의 대군을 돌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유비는 조조의 대군에 쫓겨 처자식마저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창술과 궁술을 이용해 어린 유선을 품에 안고 감부인을 보호해 무사히 유비에게 넘겨주었다. 유비는 화가나 유선을 내팽개치려 하였다. 하찮은 어린아이 때문에 장군의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에 감동한 조운은 평생 충성을 다하였다.

긴 창을 든 조운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조조군을 향해 돌진해 안명을 찔러 죽이고 용장 장합도 기세에 눌려 물러났다. 마연 장의 초촉 장남 네 장수가 가로막고 추격하지만 추호도 두려움 없이 적진을 돌파해 나갔다. 경산 꼭대기에서 이를 목격한 조조는 좌우를 돌아보며 저 장수가 누구냐고 물었다. 조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참으로 범같은 장수로구나'라고 칭찬하며 '절대로 활을 쓰지 말고 반드시 사로잡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조조의 생포 명령 덕에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적이라도 뛰어난 인재를 사랑하는 조조의 성격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그는 이 싸움에서 긴 창을 세 개나 빼앗고 50여명이나 되는 조조군 장수를 찌르고 베었다고 한다. 그의 단기구아두(單騎救阿斗) 일화는 조자룡을 만고에 비할 자 없는 명장으로 각인시켰으며 삼국지의 수많은 장면 중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삼국지연의 등을 토대로 한 연극에서 그는 흔히 유비, 관우, 장비에 이어 넷째 아우로 불리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관우나 장비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오호장군인 마초와 황충보다 못했으며 심지어 위연보다도 아래였다고 한다. 221년 유비가 촉의 황제가 되었을 때 장비는 거기장군 서향후에, 마초는 표기장군 태향후에 봉해졌으나 그의 관직은 끝내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뛰어난 무예, 고상한 인격, 담력과 식견 등으로 삼국지연의의 저자 나관중에게는 크게 호평을 받아 역참오장(力斬五將) 같은 일화를 만들어냈고 후세 사람들이 관우와 장비에 버금가는 유비의 동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 유비 부인·아들 구한 촉의 충직한 용장

수년 전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삼국지의 인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조운은 제갈량에 이어 당당히 2위에 선정됐다고 한다. 그가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사가 심백준은 충직과 겸손을 들고 있다. 그는 유비가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릉 전투를 일으켰을 때 당시의 정세를 따져 오나라 정벌을 단호히 반대했다. 지금은 오나라와 연합해 주적인 위나라에 대항해야 할 때라는 이유에서다. 이릉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 유비가 벽제성에서 일찍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

그는 여러번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 두 번씩이나 주군인 유비를 사지에서 구해주었다. 공적이 관우와 장비에 못지 않았지만 돌아온 지위나 보상은 훨씬 못미쳤다. 뒤에 귀순한 황충이나 마초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 후난 위성TV가 무신 조자룡 시리즈를 방송해 크게 인기를 얻은 것도 그의 인간적 겸손함과 용맹에 시청자들이 크게 열광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인 삼국시대의 충직한 용장이었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700㎡ 건물2005㎡ ▶감정가 19억5천8백만원 최저가13억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 7억9천6백만원 최저가 5억5천8백만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7억3백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2349㎡ ▶감정가14억 최저가 6억2천7백만원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감정가 1억1천 최저가 6천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음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내 대지 3293㎡ 건물 1495㎡ ▶감정가 17억5천만원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단층공장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 1,261㎡ ▶감정가 12억1천6백 최저가 9억7천3백만원 현학원 운영중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210㎡ 건물152㎡ ▶감정가 1억8천6백만원 최저가 1억3천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9억1천5백만원 최저가 9억1천5백만원
★ 광산구 오산동 진곡산단내 대지 319㎡ ▶감정가 1억9천5백만원 최저가 1억9천5백만원 단독주택부지 기반시설완료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 177㎡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수익형 일반매매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매매 5억8천(조정가)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흥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율 ▶매매27억원(융13억포함)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억(융28억포함), 수익성 월8천정도

투자추천 일반매매
★ 광주 북구 운암동 대지 469㎡ 건물 1781㎡ 지하1층~지상5층 대로변 준주거지역 ▶매매 15억(융7억4천포함)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억3천, 월2천7백)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422㎡6층 모텔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융4억8천 추가3억대출가능)
★광주 광산구 월계동 숭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